

을 공마 또는 반월형으로 여겨 ‘처음에 부자가 되나 이곳에 계속 머물면 차츰 가세가 기울어 지므로 부자가 되었을 때 마을을 떠나야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약 300년 전에 안성 이씨(李氏)로 전하며 울산 박씨(蔚山朴氏), 광주 이씨(廣州李氏), 정선 전씨(旌善全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봉화 정씨(奉化鄭州) 순으로 입향했다고 전한다. 마을을 개척할 당시 백암산(白岩山)을 중심으로 동쪽에 산야(山野)가 아름답고 농토가 비옥하며 마을이 음지(陰地)쪽에 자리 잡았다고 하여 음남아(陰南阿)라 하였고, 속칭(俗稱)으로는 음지마을이라고도 한다. 울산 박씨(蔚山朴氏) 음남아 마을 입향조인 박광손이 지은 재실인 남계정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29세대가 거주하며 울산 박씨(蔚山朴氏), 용궁 전씨(龍宮全氏) 등이 주로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마음소(馬飲沼)

이 소(沼)는 말이 물을 마시는 형태라 하여 마음소(馬飲沼)라 부른다.

제19절 외선미1리(外仙味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외선미리의 속명은 선미(仙味)이다. 안마, 내촌으로 부르기도 한다. 동쪽은 달부내등을 경계로 선구2리 음지마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금장산(金藏山)을 경계로 영양군 본신리와 닿아있다. 남쪽은 호봉골등을 경계로 외선미2리 원마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때기재를 경계로 기성면 이평리와 닿아있다. 외선미1리는 선구2리와 외선미2리 사이에 있는 미륵들의 동북쪽으로 형성되어있으며,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에 ‘할배당’인 성황당이 있다. ‘할배당’은 마을의 위쪽인 곤두골에 있다. 외선미1리는 새재마, 중간마, 물감나무마을, 강변마, 양자마, 음지마

의 여섯 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건립되었다. 예부터 수질이 탁월하여 전통한지를 특산물로 생산하였다.

2. 마을의 역사

‘배씨 터전에 손씨 골맥이’라는 향언으로 미루어 흥해 배씨가 처음 마을을 개척하고, 이어 평해 손씨가 터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주민들은 배씨 이전에 안성 이씨가 먼저 들어오고 손씨보다 경주 이씨가 먼저 들어왔다고도 한다. 1765년 무렵에 강원도 평해군 원서면 선미리에 속했으며, 1912년에 외선미리로 개명했다. 1917년에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로 편제되고, 1971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1리로 편제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46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손씨(平海孫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금장산[金藏山; 848.4m]

온정면 외선미리와 매화면 길곡리,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山)으로 산세(山勢)가 험하며, 금(金)을 감추고 있다는 전설이 전한다.

2) 닥종이 공장

1900년 초까지 전통한지인 닥종이를 생산하였다. 품질이 좋기로 이름났으며, 닥종이 공장인 지통은 중간모테지통, 도랑건너지통, 웃지통의 세 곳이 있었다.

제20절 외선미2리(外仙味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외선미2리의 속명은 원마 또는 원촌이다. 마을에 원님이 묵고 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